

# 남원시, 자치도 특례활용 사업 구체화

### 전북특별법 12월 27일 시행 곤충·바이오산업·스마트팜 등 5대 분야 36개 사업 실행력 강화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의 발걸음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오는 12월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만큼 남원시 또한 도정 방향에 맞춰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 중 5대 분야 36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히 곤충과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합파우아트벨리 등 역점사업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5대 지구 지정 특례에 대응, 추동력을 확보할 구상이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국가에 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언급했다.

또 ▲야간관광산업 육성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공공 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최경식(맨 오른쪽) 남원시장이 지난 2일 '전북특별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등 31개 사업의 다각화로 소득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 특례 발굴로 특례 산업을 선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전북특별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남원시의 특례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한우 경쟁력 강화 16억원 투입

### 유전 형질 개량 등 7개 사업

정읍시가 전국 최대 한우 사육두수에 걸맞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6억3220만원을 투입,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한우 품질개선 지원 ▲자가 인공수정 농가 육성 ▲암소 유전 형질 개량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친자 확인검사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및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사업은 최신 기술인 한우의 유전체 정보분석 활용으로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량한우는 집중 육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한우는 조기 도태를 유도해 탄소 배출량도 줄여 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유전체 분석을 통

해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선별해 송아지 생산을 막고 비육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난소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혈통 좋은 암소 등록 및 선형심사를 실시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과 가족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우량 송아지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해 미네랄 블록, 사료첨가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는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한우농가의 자가 인공수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한우에 대한 탄탄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정읍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이번달 산불 예방 비상 체제

### 읍면동 소각대응반 구성·관제시스템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남원시가 기온상승과 강풍특보 등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우 4월 발생 빈도가 44%에 달한다.

특히 2022년에는 4월 발생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4월에만 5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4월은 산불의 위험시기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읍면동 공무원 소각대응반을 구성, 관내 소각행위 대응을 위한 단속과 계도,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산불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산불감시인력의 탄력 운영을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 및 입산통제구역, 묘지

등 산불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동순찰대원의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정확한 산불위치 추적 등 산불 초기 진화와 대형산불 사전 방지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 경로당 494개소의 IPTV에 산불예방 홍보동영상과 자막 송출은 물론 산불 예방 리플릿 배포 등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기상여건과 시민분들의 산불예방 협조로 예년에 비해 산불횟수가 크게 줄었으나, 한번의 방심이 큰 재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위험행동이나 산불원인제거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보건소가 오는 5월23일까지 매주 2회, 보건의로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운동·정신·영양 등 다양한 건강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고창군 70세 이상 낙상 경험률이 29.5%, 우울감 경험률은 11.7%로 전북 대비 10.6%포인트, 1.1%포인트 높아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보건소는 노년기 건강상태에 맞춘 근력 소실 및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을 실시한다. 또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치매 인식 개선 및 소근육 활동 교육(앞치마 만들기 등), 우울증·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우울증 교육 등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교육이 제공된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낙상, 관절질환, 우울 및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을 예방·관리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주말엔 내장산 음악분수 공연 보며 휴식을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의 화려한 공연 모습.

### 정읍시, 6일부터 시험운영

정읍시가 오는 6일 주말부터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분수의 공연을 시작한다.

정읍시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이 4월 주말 동안 오후 2시와 5시30분 2회에 걸쳐 시험공연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후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3회씩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2시와 5시까지 5회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새로 구입한 공연 곡을 바탕으로 워터파크 음악분수만의 화려한 조명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 레이저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인 예정이다. 또 내장산 워터파크 내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행사를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단 매주 월요일은 분수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 공연을 하지 않으며 우천·낙뢰·강풍이 있는 날 역시 상황에 따라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청년농 육성 '고창형 스마트팜' 구축

### 고창군-농업기술원 협약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손을 맞잡고 지역 청년농업인이 쉽게 참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고창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심덕섭 군수와 농업기술원 최준열 원장, 과제연구소 서경원 소장, 수박시험장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원과 '고창형 스마트팜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현장과 스마트팜 이해가 높은 농업기술원의 전문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단지 구축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

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분야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성송면 판정리 일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65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용 스마트팜 단지조성과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춰 열정과 의지가 있는 청년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고창형 스마트팜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지역청년들과 고창으로 귀농·귀촌해 첫 농사를 하려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수 목 장

#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